

CLEAN UP SUNBO “2010 시무식”

지난 1월 4일 본사 교육장 및 각 공장 회의실에서 2010년 경인년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기 위한 우리 회사의 시무식이 열렸다. 결의문 낭독, 대표이사 시무사, 상임고문 시무사 그리고, 결의를 다지는 케익절단의 순서로 진행된 시무식에서 우리 회사는 2010년 해양 및 육상 모듈 전문 초우량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출발! 2010 SUNBO Family 신년사



사랑하는 선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호의 기상을 품고 경인년 한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선보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함께 가정에는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동물의 왕 호랑이는 동물 중에서도 기가 가장 센 동물입니다. 우리 선보가족 모두는 호랑이의 양기를 받아 조선불황을 지혜와 슬기로 극복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하나 되어 다함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힘찬 출발을 시작합니다.

올해 우리 회사 고사성어는 虎視牛步(호시우보)입니다. 호시우보란 호랑이 눈으로 주시하고 걸음은 소처럼 꾸준히 신중하게 걷는다는 뜻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풀이해보면 호랑이 눈에서는 장사의 100배가 넘는 양기를 발산한다고 합니다. 호랑이 눈에서 발산하는 양기 때문에 다른 맹수들은 호랑이를 만나면 무조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힘이 센 동물은 소입니다. 소 발은 아주 작으나 불필요한 걸음을 걷지 않고 가야할 길이라면 지칠 줄 모르고 끝없이 꾸준히 걸어가는 동물입니다.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다는 말을 수없이 많

이 한 걸로 기억됩니다. 많은 제도나 업무개선 등 착수는 했는데 도중에 없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획기적인 발상이나 제도라도 시작만 하고 도중에 그만 둘 것이 아니라 고치고 손질하여 최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올해는 더 이상 시행착오 없이, 시작만 모든 일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항상 호시우보란 고사성어를 되살리며 행동하고 실천합니다.

경인년 올해는 비장한 마음과 각오로 새해 새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조선소나 조선기자재 회사는 어느 해보다 시련과 위기의 한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백호의 기상을 품고 동해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힘차게 떠오르는 희망의 새해 첫해를 보며 고사 성어 호시우보를 가슴 속에 가다듬고 시련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함께 사회로부터 칭송받는 일등회사 건설을 위해 성원과 함께 격려해 주실 것을 기원하였습니다. 어쩌면 모두가 부질없는 일인지 모르겠으나년부터 마음의 안정과 함께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비장한 마음의 각오를 가다듬는 기회가 되었으며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혼자는 결코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선보가족 모두의 밝고 희망찬 미래 건설을 위해 한마음 하나 되어 힘차게 전진해 나갑시다.

선보가족 대단원의 1차 목표인 “VISION 2012” 목표달성의 기반 조성을 위해 작년 12월 29일 세계적인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회사인 GPS 사와 공동으로 4월에 해양/플랜트 전문회사 설립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올해는 해양/플랜트 사업 시작 원년의 해인 동시에 매출 2,000억원 달성에 재도전하는 해입니다.

선가하락, 물량감소, 제품가격 하락 등의 악재로 인해 매출목표 2,010억원 달성은 결코 쉬운 도전이 아니지만 에너지 넘치는 선보인의 열정과 무한한 도전정신으로 경인년 한해를 마무리할 때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축배를 들기 위해 크고 작은 고통, 희생과 봉사정신이 절

실하게 요구될 뿐만 아니라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 목표를 100% 달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선보가족 여러분!

위기와 시련을 극복하고 생존과 도약을 위해 우리가 실천하고 지켜야 할 주요사항 몇 가지를 당부 드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책임경영 확립을 통한 내실경영 강화입니다.

우리 선보는 지난 2007년 경영혁신 원년 선언 후 부문단위 조직을 개편하여 책임경영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년차가 되는 올해는 보다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이양을 통해 확고한 책임경영체제를 정착시키고 내실경영을 실현하여 책임조직별 성과를 평가하여 포상과 책임이 함께하는 원년이 되도록 경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둘째, 능력 위주, 성과 지향의 조직 문화 구현입니다.

우리 선보는 성과지표 중심의 전략경영 시스템인 BSC를 통해 SUNBO VISION 2012 중장기 경영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경영목표달성을 위해 우리는 부문별 조직원 모두의 합의에 의해 작성한 사업계획에 대해 주 단위, 월 단위의 계획, 실행, 확인, 피드백의 프로세스를 정제화함으로써 성과중심문화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목표관리에 대한 업적평가와 역량평가를 통해 능력에 따른 차별화를 도입하여 성과중심지향주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셋째, 극한원가 실현을 통한 기존 제품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금 조선시황과 환경은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최적의 설계와 생산 공법개발, 공장 회전을 증대를 통해 생산성향상을 극대화시켜 최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만들어 우리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원가관리에 도입하여 제품별 책임 원가체도를 시행하여 극한원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넷째, 신사업 개발을 통한 미래 수익기반 구축입니다.

회사는 해양, 신규 사업을 위해 조직 확대를 추진하고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해외 업체와 협업을 통한 엔지니어링 회사를 창업하여 해외 수주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존 제품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우리 회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주요한 사안입니다. 기존 조직은 신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섯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는 도전입니다.

매년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가 두려워 도전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도전을 하지 못한다면 변화할 수 없고 미래는 없습니다.

열정으로 최선을 다한 실패는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호랑이 눈으로 애리하게 주시하여 소처럼 신중하게 지속적으로 도전한다면 극한의 난관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나갑시다.

사랑하는 선보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합의하고 목표달성을 결의한 사업목표에 대해 다시 한 번 새로운 마음으로 결의를 다지고 매출목표 2,010억원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VISION 2012”의 완성과 “보다 나은 삶의 가치를 구현하고 더 큰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 건설과 무재해 사업장을 조성하여 우리 모두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한마음 하나 되어 경인년 힘찬 항해를 위해 뱃고동을 울리며 우렁찬 박수와 함성과 함께 목표달성을 위한 희망의 뜻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월 4일
SUNBO Family 대표이사 최금식



謹賀新年



2010 임원진 신년사

다함께 손잡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 전진을 시작합시다!



장명우

상임고문

경인 새해를 축하드립니다.
당당하고 멋지게 출발 합시다.
다함께 손잡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 전진을 시작합시다.

사업계획 발표에서 어느 부서장께서 大人虎變(대인호변)이라는 구호를 발표했습니다.
호랑이는 흔히 용맹성을 칭송합니다만

느릿느릿하고 여유로운 걸음걸이가 있는가 하면 인내와 기다림 속에 치밀한 관찰이 있고 순간적 도약과 혼신을 다하는 공격으로 돌변하는 虎變(호변) 그 자체는 우리가 금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본보기가 됩니다.

종무식에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잘 알고 있고, 잘 준비되었으며 당당하고 멋지게

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린 금년 사업계획의 담담한 첫발을 주저 없이 내딛읍시다.

최금식 사장님의 힘찬 깃발 아래 800여 호랑이들의 유유함과 당당함, 그 관찰과 도약의 기상을 하나 되어 펼쳐나갑시다.

전 사원의 가정, 가정 마다 축복이 1년 내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표달성으로 미래를 보상 받으십시오.



최상식

부사장

존경하는 선보가족 여러분.
2010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에는 선보가족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선보가족이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다 나은 삶의 가치를 구현하고 더 큰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 건설을 위해 우리는 지난해 매출 2,000억원 달성에 도전하여 외부의 악재, 준비부족과 역량을 결집하지 못해 실패의 쓴잔을 마셨습니다.

올 해는 지난 해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여 부문별 대책을 수립하고 세부실천계획을 세워 매출목표 2,010억원 돌파에 재 도전하

는 해입니다.

매출 목표달성과 도약을 위해 SUNBO Family 총괄 대표이사님께서 신년화두 虎視牛步를 내려 주셨습니다.

호랑이의 지혜와 용맹성, 공격의 기회를 잡기 위해 기다리는 인내심,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여 순식간에 상대를 제압하는 예리한 파악과 더불어 소는 정직하게 한눈 팔지 않고 가야할 길을 신중하게 지칠 줄 모르고 끝까지 걸어가는 우직함을 가진 동물입니다.

우리 모두는 虎視牛步의 마음가짐과 자세로 개인의 역량과 에너지 넘치는 열정을 결집시켜 조직원의 합의 아래 수립한 계획

을 하나하나 실천하여 목표를 기필코 달성하도록 합시다.

이 희망의 도전에 흔들림 없이 전진 합시다. 선보가족 모두의 역량과 열정에 선보의 꿈과 희망을 싣고, 우리의 열정적인 에너지를 결집해 위기의 조선 불황을 극복하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는 희망의 2010년 새해가 되도록 합시다.

선보가족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로운 십년의 첫해부터 호랑이를 잡은 포수가 되도록...



김양태

선보유니텍 담당

군신화에도 나와 마늘과 쑥만 먹다가 견디지 못하고 굴을 뽀뽀한 동물이지만 그 위풍당당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호랑이에 관한 속담처럼 올해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겼으면 합니다. 2008년을 정점으로 세계경제가 후퇴하고, 세계를 이끌어 가던 미국경제도 지금불능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경제전망에 우리는 더욱 분발하여 호랑이의 호시탐탐(虎視眈眈)한 기운을 이어받아 우리의 장점을 더욱 살리고 정신을 집중하여 부족함을 빨리 보충해서 새로운 신 성장동력 발굴에 매진해야만 한다고 다짐해봅니다.

미국의 과소비에서 발생한 지구촌 금융 위기로 전세계가 저소비, 저성장, 고실업이 현실이 되고 있는 이 때, 우리 모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빛을 갇아나가야 할 처지입

니다.

현재의 외부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며 경영변화의 급변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하에선 변화에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조선산업은 2010년보다 2011년 이후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올해에 새로운 변신을 하지 않으면 생존자체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올해의 화두는 生存입니다. 강한자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만이 강하다는 말을 항상 생각하며 끊임없는 열정과 긍정적인 사고로 변화해야 합니다. 마치 변종바이러스가 생겨나는 것처럼 변신해야 합니다. 세상의 만물은 늘 변화하여 고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번 몸을 담글 수 없듯이 우리는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삶의 자연스런 흐름에 순응할 때 비로소 더 나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즉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장은 성장통을 수반합니다.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것으로 위험하고 힘들고 귀찮은 것이지만, 조금씩 오를수록 시야가 트여지고 새로운 풍경은 우리를 희열에 감싸이게 하며 세상을 더 넓게 보고 이해하게 해주며 더욱 지혜롭게 만듭니다.

생존하기 위해선 성장해야 하고, 성장하기 위해선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는 고정관념을 깨고 무한한 열정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항상 긍정적인 사고로 합심할 때만이 좋은 변화가 온다고 봅니다.

우리 선보가족 모두는 새로운 십년의 첫해부터 호랑이를 잡은 포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다대2공장담당

정 호 경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돌이켜보면 2009년 경제위기 속에서 선보인의 어려움이 아직 줄어들지 않아 한해를 보내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경인년 새해에는 지난해보다 더욱 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보인은 많은 어려움을 꿋꿋하게 이겨내는 저력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기회로 아픔을 힘으로 부족함을 희망으로 삼는 선보인의 저력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들도 더욱 행복한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전진해나갑니다.

우리 공장의 올해 목표는 "2010년 매출 목표 360억원, 생산능률 20%향상"입니다. 또한

"효율적 생산체계 확립을 통하여 THE BEST FACTORY IN SUNBO"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다

시 한번 필요 한 때입니다. 우리모두 다시 뭉쳐 연말에는 반드시 매출목표 360억을 달성하는 저력을 보여 줍시다.

끝으로 201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영업담당

최 흥 렬

2010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09년은 아쉬운 한 해였습니다. 계속된 수주취소와 물량감소로 경쟁이 치열하여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보답하지 못하고 수주목표와 매출목표 달성에 실패하였습니다.

2010년 또한 어려운 한해가 예상됩니다.

세계경제는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우리가 납품하는 국내 조선사들은 대부분 수주량이 지극히 저조하고 선주사들의 자금악화 및 해운시황의 불투명등의 이유로 건조일정이 연기되어 2010년 물량은 전년대비 20-30% 축소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생산성 향상 의지와 위기극복을 위한 여러가지 TFT

활동과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 모두의 끊임없는 노력은 반드시 매출 2010억 달성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올 한해 저희 영업에서는 고객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절대 NO라고 말하지 않고, 요구사항은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을 외치며 힘차게 한해를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



다대1공장담당

한 봉 화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는 백호의 정기를 받아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어려운 주변 여건 속에서도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일심 동체가 되어 열심히 매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던 ① 생산공정 안정화 ② 원가(품질)관리 체계화 및 경쟁력 확보 ③ 매출목표달성을 완수 함으로서 "VISION

SB-2012"를 향한 힘찬 전진을 계속한 것은 말은바소임을 다해준 선보 가족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소중한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사우 여러분. 거대한 불황의 쓰나미가 이제 우리를 덮었습니다. 흠어지고 복지부동하면 그대로 죽을 것이고 '단합' 하여 '개혁' 과 '도전' 으로 맞서면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앞서 말씀 드린 3가지 중점추진사항

과 함께 '연구 개발부문 즉 신사업및신제품 개발을 통하여 미래의 수익기반을 조성' 하는데 더하여 추진코져 합니다.

지난날 불굴의 투지로 수많은 역경을 헤쳐 오늘의 자랑스런 선보를 이룩하신 사장님 그리고 함께한 선보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무한한 존경과 찬사를 올립니다.

선보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올 한해도 호랑이 같은 지혜롭고 용맹스러운 전진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설계 담당

공 성 문

존경하는 선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9년도에 여러분들의 열정과 도전이 값진 결실을 맺었습니다. 일년 한해의 농사가 잘 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우리 삶의 터전이 행복해 집니다.

이모두가 사람이 주인입니다. 우리는 남을 칭찬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가혹 하면서, 진작 본인한테는 칭찬에 너무 인색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일년동안 고생했다고 칭찬 한번 합시다.

품질제일주의, 현장에서 배우고, 현장에서 느끼고, 현장에서 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서로 의사소통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요 따뜻한 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2010년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호랑이 같이 날카롭게, 소처럼 우직하고 매사에 배려와 사랑, 칭찬과 봉사를 통하여 가족 친화기업으로 발돋움하는 회사로, 걸림들이 디딤돌이 되는 길을 만듭시다. 이모두가 원칙을 준수하고,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되며 꿈과 희망 목표가 있어야 하며 일등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할 때만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일하고 그 일에서 생산성을 뚫출해 내는 것이 2010년 매출액 2010억을 달성하는 청경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보가족 여러분. 올 한해도 댁내 건강과 행복 가득하기를 두손 모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보하이텍담당

박 기 제

선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 7월 선보하이텍으로 전보되어 모든 것이 낯설은 상태에서 선보하이텍 가족 여러분들의 따뜻한 배려로 큰 과오 없이 한해를 보낸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0년부터는 조선업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합심하여 각자가 맡은 업무를 변화와 혁신으로 충실히 수행하면 슬기롭게 이 난관을 극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원은 유한하나 지혜는 무

한하다. 5%는 불가능해도 30%는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고 과감하게 실천하여 성공할 때까지 한다는 각오로 모든 일에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선보 직원 여러분들에게 주요사항 몇가지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변화의 속도를 배가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자입니다.
둘째: 안정적인 공정준수로 개선 및 납기 준수 달성입니다.

셋째: 모두가 자기자하는 일에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입니다.

다섯째: 후공정은 고객(왕)이다.
여섯째: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품질유지입니다.

끝으로 경인년에는 선보가족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대3공장 담당

강 보 영

201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선보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여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09년은 우리에게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세계 금융위기라는 전례없는 경제 상황 속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끊임없는 도전과 생존을 위한 힘겨운 경쟁으로 단 하루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맘이 결실을 맺으면서 우리는 다른 형태의 위기에 대응하는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항상 공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정말 맞다면 지금 우리는 분명히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모두는 이 기회를 발판삼아 2010년 매출 2010억 달성과 VISION 2012를 달성하는데 모든 힘과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시련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과정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역경을 이겨내고 내일을 위해 흘린 땀방울은 희망으로 되돌아 오듯이 우리가 보낸 힘들었던 하루하루는 선보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인년 한해 우리 모두에게 항상 희망과 즐거운 웃음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2009년 선보 혁신 발자취

지난 한 해 우리 회사는 경영프로세스 확립을 통한 내실경영강화와 미래성장동력 기반확보라는 2009 경영슬로건을 바탕으로 기존사업 매출 22.9% 향상, 신규사업 3.4%, 생산성 124.6%를 달성했다. 2009년 한 해 혁신활동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우리 회사 전사적 성과를 정리해보았다.

1. 재무관점 경영전략

■ 기관의장, 구축블록 공장 LINE-UP

- **공장별 전문생산 체제 구축 (매출 1,860억 달성)**
- 1공장: PACKAGE UNIT, S/TUBE UNIT 전문생산
- 2공장: 대·중형 조선소 TANKTOP UNIT 전문생산
- 3공장: STRAINER, SILENCER, CALORIFIER 전문생산
- 구평공장: OFFSHORE 전문생산
- 영도공장: GLAND PE, BLOCK 전문생산
- 목포공장: 서해안권 MODULE UNIT 전문생산
- **공장별 생산 경쟁력 향상 (생산능률 124.6% 달성)**
- 1공장: 100%도후도 생산, S/TUBE UNIT 생산설비구축
- 2공장: T/T, P/W, U/D 생산기술 확보
- 3공장: 자동용접기 도입, MCV STR. 개발 등 기술 차별
- 구평공장: 초대형 OFFSHORE 수행을 위한 안벽준공
- 영도공장: GRAND P.E 생산기술 확보
- 목포공장: 군산공장 확보

■ 지속성장 기반 구축

- **FPSO PROJECT 성공적 수행**
- S1763 SKAV PROJECT 수행 (09년5월, 58억)
- D3061 시리즈 수주 및 수행 (6척, 25.2억)
- **해양조선 인프라 구축**
- 해양사업팀 신설: 09년 7월, 이주희 과장
- 임원1명, 영업2명, 설계2명 모집 중
- **국제품질인증**
- ASME "U" & "S" 획득 (09년4월)
- **해양 영업력 향상**
- 신규 프로젝트 5건 Biding 및 contact

■ 경쟁력 향상 수익기반 확대

- **원가절감 102.9억 달성**
- 절감 가능한 변동비 위주 원가절감 시행

- 전년 대비 6.2억 향상(96.8 → 102.9억)
- **실행예산시스템 구축 완료**
- 프로세스 및 전산 인프라 구축 완료 (09년10월)
- 제작원가시물레이션 수행
- ※ 다대1, 2, 구평, 영도공장 7~12월 예산

2. 고객관점 경영전략

■ 고객만족 경영 정착

- **검사합격률 : 99.1% 달성**
- 전년 대비 1% 향상 (98.1% → 99.1%)
- **제품안성도 : 99.7% 달성**
- 전년 대비 6.6% 향상 (93.1% → 99.7%)
- **고객불만처리비용 : 38% 감소**
- 전년 대비 238.7 → 147.4만원/억원
- **대외 품질 인증**
- DNV ISO 9001 갱신
- ASME U, S, STAPM 취득
- 현대미포조선 (A → AA등급 품질등급상향)
- 삼성중공업 (R → S등급 품질등급상향 심사중)
- GL 공장 승인

■ 내부 고객 만족을 위한 관리 지표화

- **KPI 중심의 경영관리 프로세스 정립**
- Strategy Map을 통한 전략의 구체화 (10대 전략수립)
- 전략 및 KPI 목표와 연계된 사업계획의 수립 (상/하반기)
- KPI 성과와 평가보상 연계 (09년 인사 고과 및 성과급)
- **팀 및 개인 목표로의 KPI Cascading**
- 팀 및 개인 단위로의 BSC Cascading 과정을 통해 회사의 전략관리 프로세스를 모든 팀과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격월 경영실적발표를 전략 실행력 강화**
- 회사 전반적 경영 ISSUE 논의 및 부적합 분석/보고

3. 프로세스관점 경영전략

■ 전략적 정보시스템화 구축

- **전사 신그루웨어 도입**
- 업무처리 신속성 확보
- 전자결재 프로세스 도입
- 09년 7월 적용
- **협력사 전자출도 및 조달 관리시스템 구축**
- 선보 생산계획과 협력사 입고계획 연동관리
- 전자출도: 도면 제개정 즉, 원가절감 실현
- **ERP 서버 업그레이드**
- 업무처리 속도 60% 향상
- 09년 10월 적용
- **D/BASE 업그레이드**
- 업무처리 속도 60% 향상
- 09년 10월 적용
- **홈페이지 리뉴얼**
- 대외 이미지 비주얼 강화
- 09년 9월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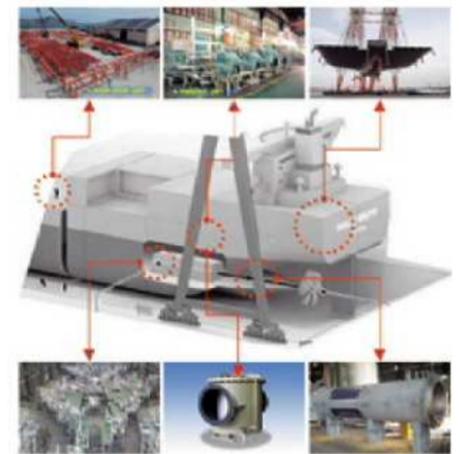
4. 학습성장관점 경영전략

■ 바람직한 기업문화 구현

- **가족친화경영 안착 : 출산친화기업 선정**
- 출산친화기업 선정 (09년10월, 부산시)
- 가족간담회 6회 실시
- 가족친화교육 및 가족초청 문화활동 00회 실시
- **안전보건문화 확립**
- 연천인율 85% 급감
- 연천인율 85% 급감 (19.5 → 3.01)
- 소방안전분야 행사부 장관수상 (1공장, 임영삼부장)
- 특별 안전보건 교육 14회 실시
- 금연클리닉 9회 운영 (149명 중 18명 금연성공)
- 2010년 전공장 금연공장 선포 (09년11월)

■ 핵심기술역량의 확보

- **핵심기술력 확보 및 유지**
- 사내자격 95% 합격



- 사내 생산자격증제도 운영 (09년1월~)
- 535명 응시 509명 합격 (합격률 95%)
- 국가공인 민간자격 인증 획득 (6개 종목)
- **선보 인적자원시스템 정립 및 운영**
- 신 인사고과시스템 적용 (09년5월)
- ※ BSC 업적평가 30% 반영
- 정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 (09년9월)
- 중기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선정 (09년3월)
- 전서 JUMP-UP 교육 1,2차 수행 (868명 이수)

■ 장기성장 핵심동력 확보

- **S/TUBE UNIT**
- 특히 2건, 수주 12억(22척)
- 설계원천기술 확보 (09년2월, KR선급)
- 설치방법 특허 확보 (09년9월)
- **STRANIER 원천기술 확보 : 특히 2건**
- MCV STR, FILTER 특허 (09년3월)
- ※ 기존 MOC 대비 10% 가격 저렴
- NEW JIS STR, 특허 (09년10월)
- **밸러스트 수 전처리 필터 기술 확보**
- 특히 1건
- 밸러스트 전기분해 원천기술 (09년11월)
- **신규사업 다각화 기반 구축**
- 해양엔지니어링회사 설립 확정 (10년3월)
- 다양한 신규사업 검토 및 추진 (8건)
- (풍력타워, 풍력블레이드, RDF재생연료, IP분배기술, Vessel, GRE PIPE, 해양엔지니어링, 육상 Plant 영업라인 구축)

2010년 우리회사 미리 보기



2010년 우리 회사의 경영슬로건은 'CLEAN UP SUNBO' 다. 지난 한 해 'VALUE JUMP UP-SUNBO' 라는 슬로건과 함께 경영프로세스 확립을 통한 내실경영 강화와 미래성장동력 기반확보 전략을 펼쳐왔다면 올해는 성장동력의 수익창출과 기존사업 원가우위의 내실경영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SB2012의 완성을 위한 박차를 가하며 보다 나은 가치와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을 건

설하기 위한 우리 회사의 도전은 계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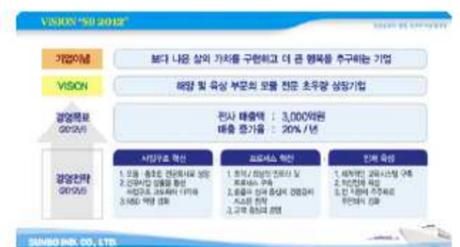
2010 선보 경영슬로건 "CLEAN UP SUNBO"

- **Cooperation (협력/단결력)**
- 전사 협력과 단결을 통한 위기극복
- **Learning (배움/연구개발/개선)**
- 배움과 연구를 통한 프로세스 최적개선
- **Economy (원가관리/절감)**
- 활동원가관리를 통한 원가우위 확보



- **All safety (안전제일)**
- 안전제일 생활화, 무재해 사업장 달성
- **Net profit (수익성)**
- 신규사업의 수익창출 달성

2010년 선보는 ON AIR
우리 회사는 기존사업 매출 1800억, 신규



사업 매출 210억 달성을 통해 2010년 매출매상 총 2010억 매출목표에 도전한다.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건실한 경영체계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해양 및 육상모듈 전문 초우량 상장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우리 회사의 2010년은 이미 시작됐다.



2010년 경영 목표 달성 워크샵 진행돼 한계돌파, 신념강화 특강 및 숯불걸기 체험으로 실천력 Upgrade!!

지난 12월 18일, 19일 이틀 간 부산인력개발원에서 팀장급 직원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경영 목표 달성 워크샵이 진행됐다. 이번 워크샵은 2010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목표의식 제고와 비전 SSB2012 달성을 위한 일체감 형성, 그리고

경영목표달성을 위한 자발적 몰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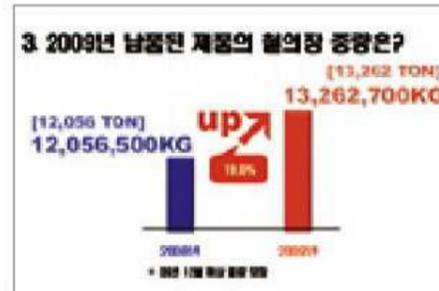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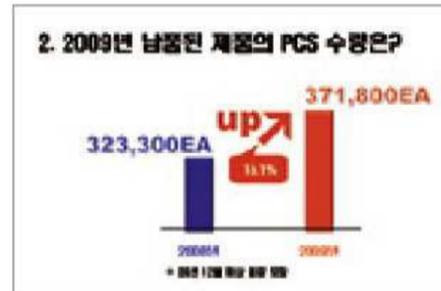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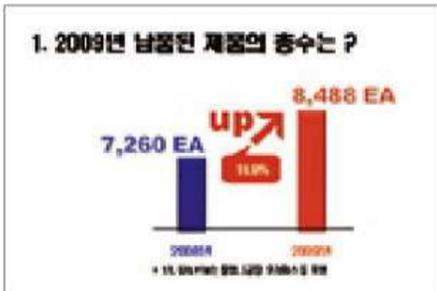
이번 워크샵은 사업발표계획 외에도 뜻깊은 특강들이 많이 진행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팀장급 관리자들을 위해 실행력 강화를 위한 한계돌파 특강과 숯불걸기

체험, 그리고 신념강화 특강이 진행된 것. 이번 특강을 통해 참여자들이 한 팀을 이끄러어나가는 관리자들이 실천력을 강화시키고, 사업계획에 비해 동한시 되었던 실행계획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Kup down 숫자로 본 2009년 선보

다사다난했던 2009년 한 해가 저물어갔다. 선보는 어떤 모습으로 올 한 해를 보냈을까. 선보의 2009년을 간단한 숫자와 함께 살펴보자.



2009 경영 시뮬레이션 수기!

2010 원가의식과 경영이해를 위한 경영시뮬레이션 과정 이후 교육과정을 진행했던 행사에서 우수 후기 두 편을 선정했다. 우수 후기로 선정된 설계5팀 이순복 계장과 구평공장 설계팀 이수진 사원의 수기를 사보에 게재한다.



설계5팀 이순복 계장

원가의식과 경영이해를 위한 경영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 모든 흐름은 설계가 중심이 되어 운영된다는 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부서 하나하나 한 명의 구성원들이 중심이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며 회사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장의 위치에서 모든 팀원을 이끌어 주고 중요한 결단이 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해주고 경리의 위치에서 각 구성원의 협의한 결과를 정리하고 매기가 마무리 될 때에 결산하여 영업 이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영업은 매기마다 수주정보나 영업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각 회사 구성원에 전달해주고 자재는 제품 설계도와 판매계획에 의거하여 자재 구입을 영업과 경리팀과 의논하여 자

재구입량을 미리 파악하고 정리, 활용해주고 생산, 생산기술은 원활한 계획에 의해 생산력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배분을 해야 합니다.

또 설계는 매기마다 설계도를 작성하고 제품을 새로 개발 해야 하는 과정을 시행하였습니다.

모든 과정을 한눈에 보면서 다른 부서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구나 하는 이해도가 커졌고 계획, 설계, 생산, 납품을 통하여 고려되어야 하고 고민되어야 할 일들을 다음에 본업으로 돌아가서 그 고민을 충분히 고려하여 활기차게 내일을 할 수 있게 되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들

니다.

뿌듯하고 행복한 마음이 드는 것은 이 기회를 통해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더욱 키웠다는 것입니다. 한자리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내 자신이 되도록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천사유 : 본 교육에 어떤 자세로 참여했으며 그 결과 어떤 것을 얻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회사경영 전반을 이해하는 안목과 함께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실천의지가 돋보인다. 이에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더 나은 선보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시라는 의미로 추천한다.



구평설계 이수진 사원

1차와 같이 이틀 동안 교육을 받는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우선 궁금했습니다. 1차 때는 여러 이벤트도 많이 하고 여러가지 즐겁게 게임을 하면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끝이났었는데, 주제를 보니 헉.. "원가의식과 경영이해를 위한 경영시뮬레이션". 듣기만 해도 무겁게 느껴지고 조는 모습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입과를 했는데 첫날에 OX게임으로 가볍게 몸을 풀

고.(저는 정말 이 시간이 아쉽습니다.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교육에 들어가 교수님 지도에 따라 모의 사업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사장을 뽑고 팀을 꾸리면서 하나의 기업의 틀을 다져나갔습니다.

레고를 이용하여 하나의 자동차 사업체를 꾸려나가면서 경영 프로세스를 익혀나가는 교육이었습니다.

처음에 레고가 있길래 어린시절로 돌아가는 듯하여 마냥 즐거웠으나 레고는 하나의 도구일 뿐 물건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매출을 발생시키다가면서 사업계획과 더불어 회사의 자산을 검토하고 이윤을 내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복잡한 구조를 보였습니다.

원가절감 하나에서 오는 자재비 절감의 놀라운 효과와 잘못된 공정으로 인한 손실과정이 작은 레고판에서 보여지는 것이 신기

했습니다.

결산이라는 과정은 정말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에서 매출목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었습니다.

처음 결산에 참여하였을 때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진땀을 뺐으나 여럿이서 계산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특히 우리 회사 회계사(보조교수님)께서 도와주셔서 한결 쉽게 익혀 나갈 수 있었습니다. 결산도 함께하고 생산도 함께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부서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데 모여 대인관계도 더 넓힐 수 있었고 협동하며 의지하는 시간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 본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보유니텍 설계기사입니다. 비록 레고판이었고 정해진 자재 내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소조립품이었지만 설계자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도 작도의 중요성, 자재산출의 중요성, 원

가절감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설계자의 말 한마디가 납품공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하는지, 설계새선한 부분이 자재비 절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던 이들..

우리 조원뿐만 아니라 우리 선보 모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추천사유 : 교육 입교일로부터 종료 후까지 자신이 느꼈던 바를 감정상태를 포함하여 솔직하고 순박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육에서 다루고자 했던 내용들을 빠짐없이 이해하고 회사 및 자신과 연관시켜 자신의 역할과 중요성, 향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등의 실천의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2009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

2009년 선보 총무식

집하기 위한 총무식이 지난 12월 31일 사내 교육장에서 열렸다.

이날 총무식은 상임고문의 인사, 공로상 및 우수상 시상, 대표이사 총무사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임원 및 대리급 이상 간부사원 등이 모였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이 날 총무사를 통해 "올해 매출목표는 미치지 못했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모두 열심히 해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격려했다.

한편 총무식에서는 한 해를 정리하며 우리 회사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 임직원



에 대한 시상이 함께 진행됐다.

시상부문은 경영성과 목표달성 관리부문, 조직관리부문, 생산능률/혁신 업체부문, 반생산부문, 모범상 등이며 경영성과 목표달성 관리부문과 생산능률/혁신 업체부문은 대상과 우수상으로 세분화해 시상했다.

■ 2009년 총무식 수상자

경영성과대상 임원부문

-선보공업(주) 임원 한봉화

경영성과대상 부서장부문

-선보공업(주) 부장 서재욱

경영성과 목표달성 관리부문 단체 대상

-선보공업(주) 과장 이수근

경영성과 목표달성 관리부문 단체 우수상

-선보UNITECH(주) 차장 김건우

조직관리부문 단체상

-선보UNITECH(주) 대리 김태경

반 생산 부문 단체상 대상

선보공업(주) 허현

경영성과대상 관리자부문

-선보공업(주) 과장 최순찬

-선보공업(주) 과장 유무성

-선보공업(주) 대리 이수원

-선보공업(주) 과장 신성인

경영성과대상 업체부문

-보성산업 대표 김주한

-금천산업 대표 신부찬

-우성산업 대표 박상주

모범패

-선보공업(주) 대리 이재민

-선보공업(주) 대리 민병기

-선보공업(주) 대리 정재현

-선보UNITECH(주) 과장 표종원

-선보UNITECH(주) 대리 김현우

-선보HITECH(주) 계장 이경화

-선보공업(주) 반장 박재용

우수사원패

-선보공업(주) 대리 박용갑

-선보공업(주) 사원 김동관

-선보공업(주) 계장 문종현

-선보UNITECH(주) 계장 이순복

-선보UNITECH(주) 사원 이수진

-선보공업(주) 사원 권남현

-선보공업(주) 안태주

-선보공업(주) 계장 조현상

-선보공업(주) 김형원

-선보공업(주) 이영근

-선보공업(주) 노재태

-유성공업사 신용하

-순해공업 강신규

-광진공업 손성훈

-선보공업(주) 배승룡

-선보공업(주) 김유성

-신일공업 이덕수

-신덕ENG 라시드

-선보공업(주) 장기봉

-선보공업(주) 지기환

-UNITECH 김지훈

-대한ENG 김충복

-대한ENG 허경남

-보성산업 권오용

-보성산업 김영호

-서경PLANT 김형석

-서경PLANT 박경철

-선보UNITECH(주) 성장훈

-대성조선 예성용

-대현산업 정미숙

-파엔에스 김종기

-진성기업 김대봉

-부경ENG 박건성

-선보HI-TECH(주) 서순일

-선보HI-TECH(주) 김효희

-GDETEC 명태현

-GD산업 송명준



2009년 12월 수상·인증 열전

올 한해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우리 모두의 노력을 모아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이는 각종 인증, 수상 등으로 그 결실을 이루었다.

수출 5천만불 탑 수상



우리 회사가 12월 16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 46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수출 5천만불 탑을 수상했다. 지난 2005년 천만불 수상 및 2007년 3천만불 수상에 이어 세 번째로 수상하는 것으로 매년 성장을 지속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한편 이번 수출 5천만불탑 수상으로 우리 회사는 부산 기업 중 수출에 있어 6번째 순위를 기록하게 됐다. 이번 수상은 경기침체에 도 불구하고 매년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므로 더욱 값지게 평가되고 있다.

부산대학교 가족기업 선정



지난 12월 3일 롯데 호텔 부산 아스트로룸에서 열린 '부산대학교 제1회 가족기업 한마음 행사'에서 우리 회사가 '부산대학교 가족기업'에 선정되었다.

이번 행사는 부산대학교 및 부산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했으며 부산대학교 김인세 총장을 비롯해 부산 중소기업 진흥원장 등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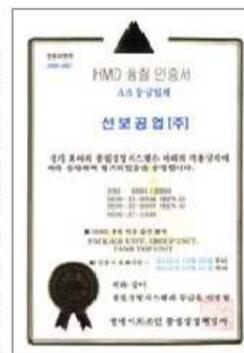
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부산대학교 가족기업' 선정으로 우리 회사가 대학과 기업간 맞춤형 연구와 교육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HMD 품질인증 AA등급 받아

우리 회사가 지난 10월 22일 현대미포조선으로부터 HMD 품질 인증을 받고 12월 8일 전달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 회사는 용접사 자격, 검사 합격률, A/S 처리능력 등에서 100% 을을 보였으며 특히 품질개선 목표인 9건을 133% 초과하는 12건을 달성하여 작년 A 등급에서 한 단계 높아진 AA등급을 받게 되었다.

우리 회사는 매년 현대미포조선을 포함한 전 조선소에서 품질인증 심사를 받아오고 있으며 매년 우수한 성적으로 인증을 받아 오고 있다.



최금식 대표이사 문화관광체육부장관상 수상

지난 12월 16일 우리 회사 최금식 대표이사가 문화관광체육부장관상을 받았다. 우리 회사는 평소 직원복지 및 동호회 활동 등에 아낌없는 지원하여 활성화시킨 공을 높이 평가받아 표창장을 받았다. 우리 회사는 현재 총 10개 동호회가 활동 중이며 매달 1회 이상의 단체활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 회사 부산광역시로부터 감사패 받아

우리 회사가 지난 12월 23일 부산광역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조선 기자재 및 해양 산업 등의 육성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우리 회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특히 올해 부산 국제조선해양대전에 참여하여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기에 주는 상이다.





2009 인증 및 수상, 남품 실적

■ 인증 및 수상

1월 21일 현대중공업으로부터 “품질우수 협력사 감사패” 수상

최근 원자재 원가 상승과 환율, 유가 급등 등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고품질 제품 생산을 위한 우리회사의 노력을 높이 평가 받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월 9일 선보유니텍, 2009년 현미 협의회 신년회 감사장 수여

적기 납품과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해 현대미포조선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우리회사가 현대미포조선의 우수협력사로 선정되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3월 3일 부산시 성실납세자 선정

제 4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진행된 행사에서 우리회사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성실납세자상을 수상하게 됐다. 금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부산시 금고(부산은행, 농협)를 통한 대출이나 예금 시 금리 우대되고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를 경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혜택은 2009년 3월 3일부터 2010년 3월 2일까지, 1년간 주어진다.

4월 30일 “ASME STAMP” 인증

우리회사는 ASME STAMP 취득을 위해 지난 3월 18일, 19일 양일간 실사를 받아 통과해 4월 30일 그 인증서를 취득했다. 이번에 우리회사가 취득한 ASME STAMP는 PRESSURE VESSEL 제작인증인 “U” STAMP 와 POWER BOILER & PIPING 를 제작할 수 있는 인증인 “S” 인증이다.

6월 5일 “Kibo A+Member”로 선정

우리회사가 Kibo A+ Member로 선정되며 우리회사의 기술력을 인증받게 됐다. 기술보증기금에서 평가한 기술평가 결과 우리회사는 기술력이 우수하고 미래성장 잠재력이 높은 점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Kibo A+ Member로 선정됨으로써 우리회사는 앞으로 각종 정책자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출시 우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게 되며 대외 신용도 향상 및 기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6월 23일

“현대중공업 품질우수 협력사 상” 받아

우리회사가 창의적 기업이념과 적극적인 경쟁력으로 양질의 자재를 적기에 공급해 현대중공업의 발전에 기여한 것을 높이 평가 받아 현대중공업 품질우수 협력사 상을 받았다.

7월 1일 한국생산성본부

창립 52주년 기념 감사패 전달받아

우리회사가 평소 KPC의 이념인 인간존중의 생산성향상 활동에 적극 참여, 실천하여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지난 7월 1일 한국생산성본부 창립 52주년 기념 감사패를 받았다. 우리회사는 지난 2007년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경영혁신 활동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고 현재도 꾸준히 혁신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9월 29일 ‘2009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 인증

우리 회사가 “2009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수여받았다. 우리 회사는 특히 이번 인증제 심사에서 중장기 교육훈련 체계를 통한 핵심기술 및 관리인력 양성, 가족친화경영, 경영전략과 사업계획의 명확한 설정과 관리, 사내현장자격증 제도를 활용한 고급생산기량 향상 교육 실시 등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는 인적자원 개발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함으로써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촉진과 모범적인 관행을 확산시키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 시행된 제도로서 정부 4개 부처(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가 공동으로 매년 수여하고 있다.

10월 21일

생산성 경영시스템 인증 이상 無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간 실시된 생산성경영시스템 현장심사에서 우리 회사가 Level 5 Plus 단계를 받았다.

지난 2007년 같은 심사에서 4등급 Plus를 받았던 우리 회사는 2년마다 돌아오는 인증 갱신 심사를 받았으며 삼성, LG 등의 대기업이 7등급 정도의 인증을 받는 것에 비교했을 때 이번엔 받은 5등급 Plus는 중소기업치고 상당히 높은 수치다.

현장심사는 조직 성숙도와 경영시스템, 경영혁신활동 성과의 객관적 측정, 목표 재설정 방향 등을 체크해 경영시스템의 정착화에 초점을 맞추어 심사됐다.

10월 21일 “모범중소기업인 멤버십” 선정

우리 회사가 ‘2009년 모범중소기업인 멤버십’에 선정됐다. 따라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 참여 우선권과 연수부담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업은행과 제휴해 플래티넘카드를 발급하는 등 기업 활동에 편의를 얻게 됐으며 회원 간 각종 경영정보 공유를 위해 글로벌 최고경영자클럽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지원정책 참여도와 성과가 높은 중기경영자 29명과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 20개 업체를 각각 2009년 모범중소기업인 멤버십과 2009년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선정했다.

11월 1일 우리회사 가족친화기업 선정 및 활동 등으로 “출산친화기업상” 수상

부산시에서 주최한 “제2회 다자녀가정의 달” 기념행사에서 우리회사가 가족친화기

업으로서의 활동을 인정받아 “출산친화기업상”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에 따라 건강한 가정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로 열렸다.

11월 9일 소방의 날 기념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장” 수여 받아

우리 회사 임명삼 부장이 다대1공장 공장 책임자로서 자치 소방안전활동을 게을리하지 않고 지속적인 사내안전교육과 예방을 통해 화재예방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제 47주년 소방의 날 기념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11월 27일 제17회 산업평화상 기업인 부문 수상

우리 회사 최상식 부사장이 제 17회 산업평화상 기업인 부문을 수상했다. 우리회사는 특히 노사분규 없는 회사로 23년 간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힘쓴 점과 성공적인 ERP시스템 정착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한 점, 그리고 많은 복지사업에 앞장 서는 등 회사의 복지수준 향상에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 대외 활동

1월 1일 최금식 대표이사 “KBS 시청자 위원” 위촉

우리 회사 최금식 대표이사가 KBS 시청자 위원으로 위촉됐다. 앞으로 최금식 대표이사는 KBS 시청자 위원으로서 KBS 프로그램에 대한 오피니언 활동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동남경제권 통합 공동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1월 4일 최금식 대표이사 대한산악연맹 부산광역시연맹 신임회장 추대

대한산악연맹 부산광역시연맹은 지난 41차 정기총회에서 우리회사 최금식 대표이사를 신임회장으로 추대했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부산산악문화축제를 전국 규모로 확대 개최하고 현재 추진 중인 부산연맹의 히달라야 8000m급 14좌 완등을 마무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9월 16일 부산시하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우리회사 최금식 대표이사가 평소 지역발전 및 지역 복지에 관심과 애착을 보여 부산시하경찰서로부터 부산시하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게 됐다.

■ 주요 실적

1월 6일 T/TOP 치녀작 H4001호선 남품



1월 23일 한진 GRAND P.E 남품



4월 20일 Stern Tube Unit (스턴튜브유닛) 자체 제작



5월 19일 삼성 1763 FPSO 마지막 남품



8월 20일 현대중공업 SKID UNIT 남품



10월 12일 대우조선해양 BULK TANK ROOM UNIT 남품



2009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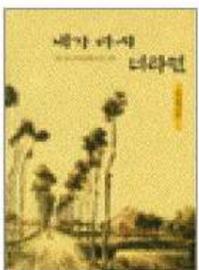
2009년 한해 동안 마음의 양식은 많이 쌓으셨나요? 여기 우리 회사 최홍렬 상무가 2009년 한해 동안 추천했던 11권의 책을 모아보았다. 이번 기회로 읽지 못했던 책을 읽으며 마음의 양식을 쌓는 것은 어떨까? 인생을 알게 된 것은 사람과 접촉해서가 아니라 책과 접하였기 때문이라지 않는가.

완벽에의 충동



삼성경제연구소의 SERICEO에는 일주일에 십수 편의 동영상 이 올라온다. 그런데 그 중에서 5년의 세월 동안 항상 최고의 조회 수를 지키며 CEO들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동영상 있다. 바로 <정진홍의 감성 리더십>이다. <완벽에의 충동>은 <정진홍의 감성 리더십>에 소개되었던 200여 편의 이야기 중 87명의 이야기를 골라 꾸민 것이다.

내가 다시 너 라면



살아오면서 겪고 체득한 지혜를 가장 먼저 자기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의 소망 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소통 사이에는 수많은 난관들이 가로놓여 있다. 아버지는 전혀 다른 세대를 살아가는 듯한 아들에게 미땅한 소통 방법을 발견 못해 머뭇거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선부른 소통 노력을 일쭉 '잔소리'로 치부해 버리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는 가장 솔직한 자기 고백을 통해 자식과의 '쿨 한' 대화를 시도한다. 이 책이 직접 대화상대로 삼고 있는 것은 이제 갓 사회에 발을 들여놓을 나이가 된 지은이의 두 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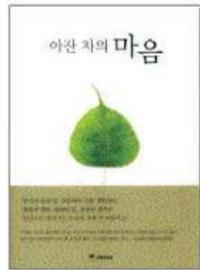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가



그라민 은행은 방글라데시 전역에 1,175개의 지점을 두고 240만 명에 1,600억 타카(약 3조 3,600억원)을 융자해주는 직원 수 1만 2,000여명의 대형 은행이다. 재정구조도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안정적이다. 그런데 이 은행의 성공에 세계가 주목하고 언론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라민 은행은 제도 금융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과 고정관념을 뒤엎는 '소액신용'이라는 획기적이고 단순한 방법으로 방글라데시 인구의 10%가 넘는 240만 가구의 생활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라민 은행의 설립자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는 신용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믿었고, 가난한 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게끔 도왔다. 그는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거대한 프로젝트로는 충분치 않다고 말한다. 가난과 싸워 이기려면 모든 경제활동의 출발점인 인간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가난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잔 차의 마음



달라이라마, 틱낫한과 더불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표적인 불교 수도승 아잔 차의 행복한 마음공부를 담은 책. 흔들릴 수 없는 평화로 본래 깨끗하고 고요한 마음 안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데려다 주는 이 책은 아잔 차의 단순하지만 힘 있고 감동적인 말들로 채워져 있다.

아잔 차는 1918년 태국 북동부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아홉 살에 출가해 스무 살에 비구계를 받았으며, 1992년 입멸할 때까지 소박한 삶, 버림의 삶을 몸소 실천했던 그의 가르침은 특히 서양인들에게 큰 방향을 불러 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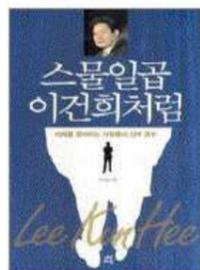
일본전산이야기



회사가 무너지면 영원히 쉬게 된다. 불황이라 한탄할 시간에 차라리 일을 하라! 이 책은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 무섭도록 집요한, 통쾌할 정도로 시원한 일본전산의 '나가모리식' 경영비법 및 나가모리 시게노부라는 한 독특한 경영자의 머릿속도 들여다보고 있는 책이다.

일본, 나아가 전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왜 그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지 왜 '우리회사도 좀 살려달라'고 자문을 구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담고 있다. 답답한 속을 뽕뽕어 줄 직설적이고도 실천적인 해법이 막연하고 막막하기만 한 기업현장으로 찾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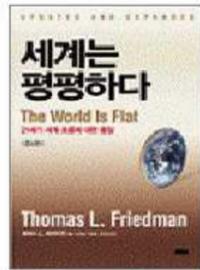
스물일곱 이견희처럼



왜 하필 지금 이견희를 배워야 하는가 '이견희 전 회장, 창조적 기업인 1위'. 이런 설문조사 결과는 어떤가? 2008년 11월 연세대 경영대학원이 경영대학 학부생과 MBA 학생 1,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창조적 리더십' 관련 인식조사의 결과이다.

이 설문에서 안철수, 문국현, 유일한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인물은 이견희 전 삼성 회장이다.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 1위, 삼성전자.' 2009년 1월 한 온라인 취업사이트에서 1천여 명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대한민국 건국 60여 년 이래, 20여 년 만에 매출을 9배(17조원에서 150조원으로), 시가총액 기준 140배로 성장시키며 이만한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낸 인물은 이견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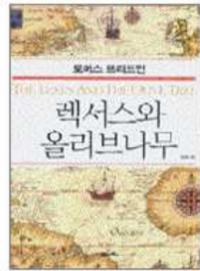
세계는 평평하다



학자들이 지금부터 20년 후 21세기의 세계사를 쓸 때, "Y2K에서 2004년 3월까지"라는 장에 도달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발전이었다고 말할까?

여러 차례 플리처상을 수상한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이 멋진 신세계를 해석해 독자들이 그들 눈앞에 펼쳐지는 어리둥절한 세계의 현상들을 이해하게 한다. 복잡한 외교정책과 경제 문제를 해석하는 독보적인 능력으로, 프리드먼은 세계의 평평화가 21세기의 여명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해준다. 또 국가, 기업, 지역사회, 개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정부와 사회가 어떻게 적응할 수 있고 적응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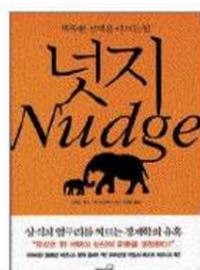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저자 토머스 프리드먼은 1992년 취재차 일본에 건너가 도쿄를 거쳐 도쿄타시에 있는 렉서스 생산 공장을 방문했다.

종업원보다 로봇이 5배나 많은 첨단 자동화 시스템으로 고급 승용차를 제작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은 그는 도쿄로 돌아오는 신칸센 초고속 열차에서 펼쳐진 인터넷서널 헤럴드 트리뷰에서 렉서스 공장에서의 본 것과 너무나 대조적인 기사를 보았다.

신문에는 팔레스타인 난민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국무부 대변인의 논평 기사,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를 크게 뒤흔들 소지가 다분한 기사가 게재되어 있었다.

프리드먼은 이 때의 경험에서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라는 두 상징을 얻게 되었다. 즉 냉전체제에서 빠르게 벗어나 현대화, 세계화, 새로운 변명을 지향하는 것의 상징으로서의 렉서스, 그리고 아직도 과거와 전통에 연연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의 상징으로서의 올리브나무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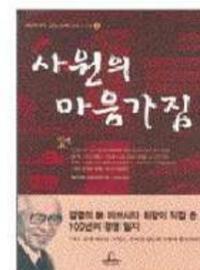
넛지



'말끔치로 쿡쿡 찌르다'라는 뜻의 '넛지 Nudge'는 일종의 자유주의적인 개입, 혹은 간섭이다. 즉, 사람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부드럽게 유도하되, 선택의 자유는 여전히 개인에게 열려있는 상태를 말한다. [넛지는 편견 때문에 실수를 반복하는 인간들을 부드

럽게 '넛지' 함으로써 현명한 선택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령, 단지 '내일 투표할 거냐?'고 묻는 것만으로도 실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일상적인 이야기로부터, 디폴트 옵션(지정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선택되는 옵션)의 설계까지, 똑똑한 선택을 유도하는 넛지의 생생한 사례들이 소개된다. 타인의 선택을 적극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2008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버락 오바마와 영국 보수당 당수 데이비드 카메론이 넛지를 활용한 정책을 수용하면서 폭발적으로 유명세를 탔고, 결국 저자 중 한 명인 선스타인은 현재 오바마 정부에 합류해서 규제정보국을 돕고 있다.

사원의 마음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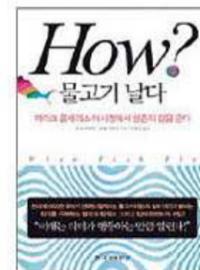


경영의 신(神)이라 불리는 마쓰시타 고노스케. 초등학교를 중퇴했던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끊임없는 창의적 연구를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경영이념 아래 마쓰시타 전기를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경영의 지혜」 시리즈는 지난 1989년 94세를 일기로 사망하기까지 경영 일선에서 수많은 업적을 이룬 그의 경영철학을 담고 있다.

이제 1편 『사원의 마음가짐』은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마음가짐과 인생의 지혜가 수록되어 있다. 저자가 수십 년 동안 회 사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들과 마쓰시타 전기 직원들에게 해왔던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열린 마음의 힘'과 '충실한 삶의 원동력'이 되는 일'을 중심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사명에 따라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라는 인생의 지혜를 이야기한다.

How? 물고기 낚다



전세계 내로라하는 CEO들이 벤치마킹한 시애틀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이크 플레이스 어시장 Pike Place Fish Market'의 성공 노하우를 다룬 책이다. 보잘것없던 34평의 작

은 생선가게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비밀을 파이크 플레이스 어시장의 CEO '존 요코하마'와 파이크 플레이스 어시장의 핵심 컨설턴트 '조셉 피첼리'가 상세하게 공개했다.

파이크 플레이스 어시장이 오늘날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어시장으로 발돋움한 원동력은 바로 '비전'에서 유래된다. 파이크 플레이스 어시장은 [떨떡이는 물고기처럼]의 주요 배경이 되었던 회사이기도 하다.



2009 이웃과, 함께하는 선보!

우리 회사가 이웃과 함께하는 연말연시를 위해 2009년 연말 사하구청과 영도구청에 각각 2천만원과 1천만원의 성금을 위탁했다. 우리 회사는 매년 명절 때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각종 성금 및 쌀 등 성품을 위탁해 왔다. "기업은 사회를 위해 존재한다." 는 말이 있다. 우리 회사 역시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수익의 사회환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지역사회 행복을 도모하는 우리 회사의 2009년 지역사회 구현활동을 정리해 보았다.

지속적인 관내 무료급식 봉사활동

- 우리 회사는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실시된 무료급식 봉사활동은 물론대 종합사회복지관과 사하구 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되었다.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회사로 거듭난다는 취지로 시작된 무료급식 봉사활동은 앞으로 도 활동을 지속하여 우리 회사의 이웃 사랑이 널리 퍼져 나가길 기대해 본다.

- 우리 회사는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사단법인 한국불교자원봉사회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지원했다.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실시된 무료급식 봉사활동은 사단법인 한국불교자원봉사회에서 진행되었다.

지역 거주 어려운 이웃위한 '사랑의 쌀 나누기'

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우리 회사는 지역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해마다 우리 회사는 지역 불우이웃을 위한

모금활동이나 기부를 해왔다. 올해의 경우 지역에서 실시하는 '쌀 나누기 행사'에 쌀을 기부하는 것으로 마음을 나누었다.

윤강재 차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명절 등에 더욱 더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우리 회사는 9월 28일 다대1동과 구평동에 10kg 쌀 200포와 100포를 각각 전달했고, 29일 영도 동삼동에 100포를 전달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다.

'UP!스쿨 1사1교' 협약 맺어

우리 회사가 9월 6일 다대중학교와 'UP!스쿨 1사1교(1社1校)' 협약식을 가졌다. 부산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UP스쿨 1사1교' 협약은 학교와 기업체가 결연해 기업은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장학금이나 기타 교육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학교는 지역 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자 실시해 오고 있다.

어려운 환경의 지역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변의 어르신 및 불우이웃 급식을 지원해왔던 우리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그 지원 범위를 한층 넓히게 됐다. 우리 회사는 'UP!스쿨' 협약을 통해 다대동 4개 교에 600만원, 영도 동삼동 5개교에 600만원 등 총 1,200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한다. 또한 결연학교 교육시설 개선의 일환으로 이번에 협약을 맺은 다대중학교에 1,000만원 상당의 전광판을 기증했다.

윤강재 차장은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지역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부산청소년장애우

일본 다이산 합동 원정 도우미 선보

우리 회사등산동호회 회원들이 지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일본 다이산 등정에 도전한 부산해성학교 장애우 학생들의 험난한 산행에 도우미로 함께 동반했다. 이번에 등정한 다이산은 일본 돗토리현에 위치한 해발 709미터의 높은 산으로 바다

와 맞닿아 있어 일본의 3대 명산 가운데 하나로 불릴 정도로 아름답지만 정상으로 이르는 등산로는 칼날 능선으로 불릴 정도로 가팔라 정상인들이 동반하기에도 결코 쉽지 않다. 또한, 정상 부근에는 한 여름에도 눈이 쌓여있고 초겨울 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어려운 산이었지만, 우리 회사 직원들의 도움과 장애우들의 열정으로 모두 동반에 성공했다.

다대1동 청년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평소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 회사는 다대1동 및 사하구 일대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도움을 주었다. 이에 지난 12월 3일 다대1동 청년회로부터 감사의 인사와 함께 감사패를 증정받았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선보 '송년의 밤' 진행돼



지난달 연말을 맞이해 각 공장별로 송년회가 진행됐다.

영도공장은 지난달 11일, 다대2공장과 구평공장은 16일, 다대1공장과 다대3공장은 17일 각각 송년회를 열었으며 대부분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뜻깊게 한 해를 마무리했다.

이번 송년회는 한해동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해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출 오천만불 달성 및 경영성과에 따른 연말선물 지급



올해는 각종 수상 및 품질인증 등 각종인증을 받는 등 풍성한 성과를 올린 한 해였다.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수출 5,000만불 탑 수상과 전사 BSC목표관리 정착의 쾌거를 이뤄 냈다. 우리회사는 이를 기념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 임직원과 사내 협력사 임직원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기념선물을 지급했다.

협력업체 간담회 및 송년회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둔 지난달 23일 우리회사 가족들이 뮤지컬 관람으로 따뜻한

단체 뮤지컬 관람으로 따뜻한 연말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관리 교양강좌' 함께 마련돼

연말을 보냈다. 이번 행사는 한 해의 노고를 치하하고 평소 회사업무로 소원해진 가족들과의 관계 개선과 직원들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대표이사의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뮤지컬 관람에 앞서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

생관리 교양강좌'를 통해 행복하고 화목한 가족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상임고문은 '세상의 모든 중심인 가족으로부터 모든 힘이 나온다'며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고 화목하고 건강한 인생관리를 통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해지시

길비란다 고소감을 전했다. 이날 관람은 직원 및 직원 가족들 중 신청자에 한해 입장했으며 약 400여명의 선보 가족이 뮤지컬을 즐겼다. 이날 관람한 뮤지컬은 '총각네야채가게'로 완성도 있는 구성과 재미로 인기몰이에 한창인 뮤지컬이다.

2009 선보 동호회에는 어떤 일이?!

2009년 선보패밀리 동호회 활동!! 활발하기도, 조금은 뜸하기도 했을 터. 여기 한박자쉬고 선보동호회의 2009년을 살펴보고 2010년의 포부를 들어 보자.

사진 동호회 고문 공성문이사, 회장 안정빈과장, 총무 최재호과장



통해 회원 상호 간에 건전한 여가 선용과 밝고 화목한 직장 분위기를 통하여 협동정신 함양과 상호 일체감을 조성함은 물론 회사 발전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동호회로 현재 총 18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올 한해 거제도를 포함한 출사 6회, 회식 6회 등의 대외 활동과 사진 스킬을 키울 수 있는 포

럼 및 교육 10회 실시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2010년에는 사진전시회, 제주도 원정 출사 등을 목표로 더욱 건전하고 즐거운 동호회를 만들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들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진 사진 동호회는 선보인이라면 누구라도 가입 가능 합니다."



등산 동호회 고문 김양태전무, 회장 심성섭, 총무 김유미, 류승진, 산행대장 현광진



29명의 건강한 우리회사 사원들로 구성된 등산동호회에 가면 건강도 챙기고, 사원 간의 정도 돈독해질 수 있다!! 매월 첫째주 일요일 정기산행으로 선보 등산 동호회가 올해 정복한 산은 일본 다이산을 포함 11개 산이다. 또한 부산산악연맹에 소속되어 있는 83개 정식 동호회 중 하나로 "선보산악

회"라는 이름으로 대외적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산악문화축제 참가 및 인터넷 카페운영 등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하여 우리회사를 알리고 다양한 사회참여의 기회 역시 놓치지 않았다. 앞으로도 선보 등산동호회는 다양한 산악활동과 대내외적 활동을 통해 건강한 선보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낚시 동호회 고문 임영삼부장, 회장 박재용반장, 총무 신성인과장

한 번 손맛을 알면 헤어날 수가 없다?! 거의 매달 출조를 통해 낚시의 참맛을 느꼈던 선보 낚시 동호회. 동호회 사람들에게 올해는 통영 갈치 낚시 출조에서부터 먹을 만큼 잡을 수 있었던 다대

포 낚시 출조까지 신선한 바다 내음과 낚시의 참맛을 느낄 수 있었던 한해였다... 다가오는 2010년에는 1년 1회 해의 출조를 계획 중이며 사하구 내 양보원, 고아원 등을 방문해 자연산 회를 시식하는 사회봉사활동도 할 예정이다.

연령 제한 무, 기술, 기능 무관, 낚시 장비는 없어도 무관합니다. 모든 것은 동호회에서 제공 합니다. 한번 참가해 보십시오. 자연에서 먹는회는 정말 끝내 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칭찬 릴레이 고문 공성문이사, 회장 박문염부장, 총무 이경식대리, 박춘복사원

이름부터 착하다. 매달 릴레이 형식으로 추천되어 선발된 35명의 가족들은 이름에 걸 맞게 사회 봉사활동을 준비 중이다. 2010년에는 조직을 '봉사활동동호회'로 전

환해 격월 사하구 내 봉사활동 실시와 분기 1회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할 계획이다. (회사에서는 칭찬 릴레이에 선정되었을 때 호텔 숙박권 및 조식을 제공하고 있다.)



선보 FC 고문 정호경상무, 회장 김황중차장, 오세진사원



올 한해 매월 1,3주 토요일 다대중학교 운동장(인조잔디)에는 열정만은 태극전사 못지 않은 우리 선보FC 선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극동 일렉콤(주), (주)화인, 진구FC 등의 동호회 가정기 참석해 친선전 및 교류전을 갖는다. 그리고, 매년 가을 구평동소재 기업/동호회

의 가족 체육대회에 참석한다. 2010년에는 회원모집의 확대와 더불어 무지개 공단 축구동호회 리그운영(최소 6개사 추진), 가족동반 K-리그관람등을 계획 중에 있으며 가족 동료간의 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포부를 다지고 있다.



야구 동호회 회장 장호길부장, 감독 최동배부장, 코치 한진우계장, 총무 권남현기사



지난 8월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창단한 야구동호회!! 그 이름 SUNBO DYNAMICS, 현재 30여명의 회원이 월 2회 주말연습을 통하여 체력 및 상호 우대관계 증진을 위해 힘차게 활동 중이다. 실력은 아마추어이지만 마음과 열정만은 프로인 SUNBO

DYNAMICS의 선전을 기대해 본다. 또한 2011년 리그 가입을 목표로 2010년도 주말연습 뿐 아니라 타 사회인 야구팀과의 친선경기, 자체 청백전 그리고 프로선수 1DAY LESSON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2009 추천 여행지!

'여행과 변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유명 철학자 리하르트 바그너의 격언이다. 당장이라도 배낭을 짊어지고 떠나고 싶은 선보 가족을 위해 한해 동안 사보를 통해 소개된 추천여행지를 결심하며 사계절을 돌아보자.

아름다운 경치와 풍류가 있는 선비의 고장 영주

영남지방의 진산(鎭山) 소백산을 비롯한 아름다운 겨울 운치, 그리고 풍류가 있는 선비의 도시 경상북도 영주. 부산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어 부담스럽지 않은 가족여행지로 손색 없을 듯하다. 이번 주말에는 영주로 떠나 설경을 만끽해보자.

소백산국립공원은 우리나라에서 열여덟 번째로 국립공원에 지정됐으며 장엄한 겨울운치를 즐기기에 좋은 산이다.

태백산에서 서남으로 갈린 산맥이 구름 위에 솟아 경상도·강원도·충청도 3도의 경계를 지으면서 서남쪽으로 구불구불 백여리를 내려 뻗어 일컫는 소백산은 영주·예천·단양·영월 네 고을의 배경이 되어 고장의 평화와 행복을 수호하며, 기품 있는 선비의 품모처럼 맑고 수려한 기상의 영기(靈氣)어린 성산(聖山)이라 알려져 있다.

영주 관광 8경 중 하나인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16년(676) 해동화엄종의 종조인 의상대사가 왕명으로 창건한 사찰이다. 이곳은 무량수전 서쪽 큰 바위가 아래의 바위와 붙지 않고 떠 있어 '뜬돌'이라 칭한 것이 연유해 '부석사'라 불리게 됐다.

부석사는 드라마 태조 왕건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그곳의 무량수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 중 하나이며, 조사당벽화는 목조건물에 그려진 벽화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현재 유물전시관에 보관되어 있다.

주말 나들이 장소로 제격, '부산경남경마공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과 경남 김해시 장유면에 절반씩 걸쳐 있는 부산경남경마공원은 가족 나들이에 환상적인 장소이다.

부산경남 유일의 가족형 말 테마파크인 부산경남경마공원은 2007년 개장하여 가까운 거리에 있어 부산 시민들의 발길을 유혹한다.

부산경마공원에 가는 이유로 제일 먼저 꼽는 것은 아이들의 천국이라는 것. 유아용 자전거 팽장, 복합 어린이 공원, 슬레이트힐, 키즈랜드에 어린이 승마장까지, 어린이를 위한 시설들이 다양하다.

탁 트인 녹지를 배경으로 자리한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자전거 팽장, 호수공원 등은 가족뿐 만이 아닌 연인의 데이트 장소로도 제격이다.

거기다 이 모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유모차와 돛자리, 아이들에게 자전거 대여도 무료로 대여 가능하다고 하니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나들이를 떠날 수 있을 것이다.

왕홀한 자연을 맛보다 '진해드림파크'



갑갑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맑고 시원한 공기를 즐길 수 있는, 푸르른 숲 속을 마음껏 거닐 수 있는 공원 '진해드림파크' 가문을 열었다. 도심 속 공원을 찾기 어려운 부산에서 자동차를 타고 한 시간 안에 만날 수 있는 진해드림파크는 진해 시청 뒤편 산림에 위치하여 거의 산전체가 하나의 테마파크로 꾸며져 있다.

드림 파크는 경남지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희귀수목이 자라고 있는 126ha에 달하는 대규모 난대림 수목의 생태자생지로, 사계절 동·식물을 직접 관찰·체험할 수 있다.

생태숲의 보고라 할 수 있는 진해만 생태숲, 사계절 계곡물이 흐르고 다양한 수목이 줄지은 광석골 섬터, 나무의 모든 것을 체험하고 볼 수 있는 목재문화 체험장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숲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느낄 수 있다. 또 중앙광장, 관찰데크, 잔디광장 등 휴식공간과 가까운 곳의 자연생태습지에서는 연꽃창포 등 수생식물과 어류 양서류 등 다양한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어 자연학습장으로도 제격이다.

입장료도 없어 공원 내 전시관과 체험장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각 시설마다 주차장이 잘 마련되어 있어 자동차를 타고 공원 안이 동도 가능하다. 평소 등산을 좋아한다면 3시간에서 8시간까지 다양한 등산로가 있어 자신에게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는 것도 드림파크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별! 볼일 있네? 가족과 함께 떠나는 별자리 여행, 김해 천문대

김해시의 내외동에서 동쪽산을 보면 마치 산이 입을 품은 듯한 모습의 신기한 건물이 산꼭대기에 보인다. 이 건물이 바로 영남지역에서 유일한 시민천문대인 김해천문대이다.

김해시를 남쪽으로 싸안고 있는 분성산 중턱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꼬불꼬불 포장도로를 걸어서 오르면 시가지와 주변의 트인 전경을 구경하는 맛이 일품이다. 고비마다 계절별 별자리판과 전통 천문관측기구를 설치해 천문대 오르는 길이 심심하지 않게 되어 있다. 어스름이 내릴 무렵 올라간다면 천문대로 오르는 길은 말 그대로 '밤하늘로 가는 길'이다.

알형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전시실인데 전시실 내부에는 11개의 주요 전시물이 자리하고 있고 나선길을 따라가면 전망대를 만나볼 수 있다. 천체 투영실에서는 천장에 설치된 지름 8m의 반구형 스크린을 통해 밤하늘의 별을 재현해주고 있다.

천문대가 위치한 분성산 정상에서는 김해시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특히 별을 관측

할 수 있는 밤에 내려다본 김해시의 야경은 매우 절경이다. 천문대뿐만 아니라 김해 야경의 매력에 빠져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야경뿐만 아니라 날씨가 맑은 날 잘 맞추어 간다면 천체망원경을 통해 신비로운 우주의 세계도 경험해볼 수 있다고 한다.

오색빛깔의 향연, 온 몸으로 즐기는 다대포 낙조분수대



보고 듣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이제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어린 시절부터 너무도 갈망했던 꿈의 무지개를 시원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웅장한 규모에 화려한 조명과 어우러져 음악에 맞춰 분수가 춤추는 장관을 연출하는 세계 최고 바닥음악분수인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덕분이다.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준공식을 갖고 원형지름 60m, 최대 물높이 55m, 물 분사 노즐수 1046개, 조명 511개, 소분수 24개 등 세계 최대 규모로 세계 기네스 기록에 도전하고 있다.

물줄기·물방울·물보라·물안개들이 수직으로 솟아오르거나 전후좌우로 비스듬히 누워 꽃밭을 만들고, 서로 교차하거나 몸을 꼬면서 큰 나무들의 숲을 연출한다. 울긋불긋 조명에다 웅장한 혹은 감미로운 음악과 어울려 짜릿한 '눈의 호사'를 선물한다. 55m의 분수가 등장할 때면 관광객들의 환호성과 함께 55m까지 올라가는 분수에 따라 사람들의 시선도 함께 올라가는 진풍경이 보여 지기도 한다. 각 공연 말미에는 분수 속으로 뛰어들어 잠시 놀거나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놀이와 체험이 될 수 있어 고정 분수 시간에는 옷이 젖는 줄 모르고 뛰노는 아이들이 물 만난 고기마냥 즐거움이 가득하다.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그곳 태종대



여행을 떠나겠다 마음 먹으면 아무래도 가까운 곳보다는 먼 여행지를 먼저 선택하는 경향이 크다. 아름답지만 가까워 매년 여행지 선택에서 제외되는 태종대로 떠나보자.

태종대는 영도의 남동쪽 끝에 위치하는 해발 고도 200m이하의 구릉지역으로 숲과 기암 괴

석으로 이루어진 해식절벽과 푸른 바다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곳이다. 신선이 살던 곳이라는 뜻으로 '신선대'라고도 불렸지만, 현재는 태종대라는 호칭이 보편화됐다.

20분에 한 대씩 운행되는 다누비 기차를 타면 한 시간 정도의 산책코스를 가로질러 태종대 전체를 관광할 수 있다.

신선대바위, 망부석을 지나 태종대 전망대까지 올라서면 깎아 세운 듯한 아찔한 절벽들이 넘실대는 파도와 더불어 절경을 이루고 있다. 파란 바다와 하늘에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이곳은, 맑은 날씨에 올라서면 일본 대마도가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전망이 좋다. 또 그곳에는 이곳 명물인 모자상이 있다.

그밖에 인공해수 풀장인 '곤포의 집'을 비롯한 워터파크와 바다낚시터 등이 있으며 너비 10m, 길이 4km 가량의 순환관광로가 섬의 명소들을 누비며 지나간다.

발에 맞는 운동화, 그리고 가족과 함께라면 하루짜리 짧은 여행도 삶의 여유를 되찾아줄 수 있을 것이다.

가을 밀양에 빠져보세요



전도연, 송강호 주연의 영화 '밀양'을 기억하는가. 밀양의 아름다운 자연과 소박한 도시 전경은 영화의 배경이 됐다.

시원한 호박소와 얼음골 계곡에서 더위를 식히고, 표충사에서 아름다운 전통과 자연을 느낄 수 있었던 밀양. 최근 아름다운 도시를 배경으로 영화 밀양과 똥개, 오구, 청평명월 등이 촬영되며 영화촬영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부산-대구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더욱 편리해진 교통편으로 한 번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위양지: 밀양시 북북면 위양리 동쪽에 위치한 위양못은 못 가운데에 5개의 작은 섬이 있는 아름다운 경치를 가진 곳이다.

위양지는 신라와 고려시대 이래 농사를 짓기 위해 만들어졌던 둑과 저수지로 위양(位良)이란 양민을 위한다는 뜻으로 현재의 못은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쌓은 것이다.

영남루: 영남루는 추화산을 등지고 남천강 맑은 물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절벽 위에 좌우익루를 끼고 날아갈 듯 서있는 누각이다. 옛날에 귀한 손님을 맞이하여 잔치를 베풀던 곳으로, 진주 축석루, 평양 부벽루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누각 가운데 하나이다.

연꽃단지: 밀양시 북북면 가산리 3만3000여㎡의 연꽃단지. 이 단지에는 수련과 백련, 홍련 등 24종의 연 2만1000 뿌리가 심어져 있으며 신청자에 한해 연잎·연실 무료체험 행사에 참가할 수 있으며, 수확한 물량은 참여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또 다른 체험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2009 칭찬 릴레이 열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선보를 더욱 굳건하게 만든다. 2009년 11명의 칭찬받아 마땅한 선보의 일꾼이 칭찬 릴레이 주자로 선정됐다. 선보의 숨은 일꾼으로, 분위기 메이커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보 칭찬 릴레이 수상자를 다시 만나보자.

2월 - 이주희 팀장



이주희 팀장은 영도공장 선각생산관리팀에서 일하던 중 FPSO 플랜트 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구평 공장으로 오게 됐다(현재 본사해양사업팀 근무). 그는 "2년 전 선각 파트는 체계화시켜야 할 부분이 많았지만 노력으로 지금은 정상화된 시스템 아래 근무합니다. 이번에도 그 경험을 살려 플랜트 프로젝트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도전을 즐긴다. "도전하고, 완성해내는 일이 흥미로워요. 어떤 신규 아이템이라도 주어진 환경 내에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다지는 이주희 팀장. 그는 또 어떤 시작을 준비하고 있을까?

3월 - 표종원 팀장



영도 공장이 만들어진 이래 계속 근무해 온 영도의 오랜 멤버 표종원 팀장은 매사 자부심을 갖고 일한다. 초기에는 작업여건이 지금과는 달리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꾸준히 주인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작업여건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자재와 생산을 총괄하다보니 가끔 생기는 의견충돌은 '모두가 최고점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다'가 만들어진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표종원 팀장. 그는 무엇보다 납기일을 중요시 여긴다. 따라서 관련 업체에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원활한 자재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선보인으로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표종원 팀장의 미래가 기대된다.

4월 - 강종만 반장



목포공장에 첫 칭찬 릴레이 주자가 나타났다. 강종만 반장이다. 그가 선보에서 근무한 지 햇수로 7년째. 주로 퓨리파이어 유니트와 포터블 탱크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종만 반장의 피로회복제는 '넵버 원'이라는 선주, 선급의 칭찬이다. 힘들게 야근과 철야작업을 했던 피로가 쌓이갈 정도의 기본 좋은 말이다. 작업이 끝나고 잘 마무리 된 것을 보면 어떤 힘든 과정도 다 위로가 된다. 그는 팀원들에게 항상 자부심을 심어주려고 노력한다. "각자가 자신의 맡은 일에서 내가 최고라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끔 격려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평소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좋은 모습으로 봐주고 칭찬받은 것 같으며 씩스름하게 웃는 강종만 반장. 앞으로도 No.1이 되기 위해 최

선을 다하는 강종만 반장의 새해를 기대해 본다.

5월 - 임인혁 사원



생산관리와 고객지원 팀에서 일하며 야드와 납품, 사급 관리를 맡고 있는 임인혁 사원은 고객을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바른 자세와 같은 마음을 지키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제품이 생산부터 관리까지 마친 후, 고객이 만족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자부심을 느낀다는 임인혁 사원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기본'이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요령이 생기기도 하지만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마인드를 잃지 않고 소신있게, 내가 맡은바 충실히 해나가고 노력하겠습니다."

원칙과 마음가짐으로 선보의 일꾼으로 최선을 다하는 임인혁 사원에게 박수를 보낸다.

6월 - 박삼주 팀장



박삼주 팀장은 탱크탑과 유니트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특히 탱크탑은 기술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남보다 일찍 와서 많이 보고 물어보면서 익혀나갔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안전'이다.

"사고는 순식간에 나는 것이라 늘 주의하고 신경 쓰고 있어요. 내부인 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있으니 안전관리가 최우선이라 생각되고 '무재해 365일' 가야하지 않겠어요?"

선보 가족이 모두 안전하고 화목한 근무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 있는 박삼주 팀장의 모습 속에 선보의 안전지대가 오버랩됐다.

7월 - 최병화 주임



3공장 칭찬주인공으로 선정된 최병화 주임은 첫 주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포부를 다진다. 최병화 주임이 선보와 함께한 지 9년이 훌쩍 넘었다. 주로 취부와 재관, 스테이너를 담당하고 있는 그는 3공장 제품이 선보라는 브랜드 네임을 달고 납품되는 것을 볼 때 가장 뿌듯하다고 한다.

"늘 사장이 될 것이란 생각을 가지고 일한다는 이사장님의 말씀이 가슴에 많이 와 닿았어요. 꿈을 크게 가지고 열심히 해나가다 보면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모두 최선을 다하자는 최병화 주임의 다음 '행동' 이 기대된다.

8월 - 김유미 사원



작은 배려 하나가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법. 맡은 일은 물론이고, 소소한 전화에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잃지 않는 김유미 사원. 구평 공장의 생산관리부에서 사급을 담당하는 그녀는 맡은 일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먼저 확인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한다. 주 업무는 생산관리업무지만,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김유미 사원은 업무관련 문의가 들어오면 사실 기본이 좋단다. 몸은 피곤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이 나에게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녀는 "앞으로도 회사에서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존재감 있는 선보인으로 남고 싶어요"라고 포부를 전한다. 앞으로도 선보 배려의 여왕 김유미 사원의 존재감이 계속된다.

9월 - 김도수 소장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서툴러 무뚝뚝해 보이지만, 말 한마디에 진심이 느껴지는 영도공장 김도수 소장은 의장설치를 담당하고 있다. 일에 대해서 프로정신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해 제품을 만들 때도 하자가 있거나 매뉴얼대로 진행되지 않는 건 참지 못하는 성격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김도수 소장은 제품만큼 직장동료를 챙기는 데도 일등이다. "직장동료들을 '가족' 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가족들과 함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10월 - 목포공장 김덕현 과장



바이러스는 무서운 것이다?! 아니다. 여기 마음껏 울고 싶은 바이러스가 있다. 목포공장 김덕현 과장이 그 주인공. 칭찬 릴레이 주자로 뽑혀 씩스름하다는 그의 회사생활은 '웃음'이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웃으면서 생활하려고 노력합니다."

앞으로도 진전한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김덕현 과장의 미래도 스마일이다.

"미소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남기 위해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선보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11월 - 자재지원반 오남기 사원



옛된 얼굴과 목소리를 가졌지만 일할 때는 푹부러지게 한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젊은이 오남기 사원은 칭찬 릴레이 주자로 선정됐다는 소리를 듣자 기분 좋기도 하고 부담스럽기

도 하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가 하는 일은 긴급 피스 제작과 용접일이다. 납기일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게 일을 계획적으로 하려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동료들과 항상 즐거운 분위기에 일하고 싶다는 오남기 사원은 기회가 된다면 대학에 진학해 공부를 계속 하고 싶다고 했다.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만들어내고 싶기 때문이다. 인터뷰 후 그를 찾는 팀원에게 큰소리로 대답하며 달려가는 그의 모습에서 선보의 미래가 보였다.

12월 - 김명운 사원



2공장 배관팀에 웃음꽃이 폈다. 김명운 사원은 부끄러워하며 모습을 드러냈고, 다들 본인 일처럼 기뻐해주었다. 분위기 하나만으로도 칭찬 릴레이 주자 선정 이유를 알 수 있었던 인터뷰였다.

그가 하는 일은 배관조립 일이다. 성격이 활발한 편이라 항상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다. 활발한 그도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어색했었다. 그는 "처음에 선보에 와서 서먹서먹할 때도 허정운 소장님 외 형님들이 힘을 실어줘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일할 수 있었다"며 팀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일할 때 서로 배려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김명운 사원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협력해서 다같이 분발하자며 파이팅을 외친다. 그가 만드는 조화로움이 선보 성장의 촉진제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선보 가족 기념일

본사 생일	
경영지원	양수경(1/2)
품질경영	이현수(1/23)
설계2팀	이재광(1/8), 정민규(1/23)
설계3팀	신인호(1/8), 이철운(1/27)
기술영업	김광문(1/10)
생산관리	이창연(1/5)
품질보증	박상재(1/27), 이현우(1/1)
자재지원	김기주(1/1)
1공장	김정민(1/9), 장형구(1/7), 이승환(1/29)
2공장	이덕수(1/29), 안대준(1/11), 김종민(1/27)
	정성규(1/14)
3공장	최광욱(1/7), 이도희(1/30), 유진균(1/10)

본사 인사기념일	
입원	최홍렬(1/1)
설계2팀	박규태(1/1)
생산관리	박삼수(1/3)
고객지원	전철민(1/1)
1공장	배희진(1/2), 장형구(1/2), 정수용(1/2)
3공장	채규민(1/9)

구평공장 생일	
생산관리	윤용남(1/7)
자재운영	박준복(1/23)
대한ENG	손종필(1/20), 권현인(1/13), 이재용(1/9)
보성산업	송기열(1/25), 김문수(1/1)
서경물류	한동근(1/27), 김영준(1/23), 윤순익(1/29)
	박정철(1/5)
하림테크	이경원(1/4)

영도공장 생일	
자재운영	최선화(1/9)

목포공장 생일	
생산관리부	이경희(1/15)
설계부	임진우(1/28)
생산부	최승철(1/18), 서순일(1/8)
지다산업	박선용(1/4)
지다테크	이영권(1/5)

목포공장 인사기념일	
품질보증부	허영준(1/3)
생산부	황성호(1/5)